대한한의학회지 제26권 제3호(2005년 9월)
J Korean Oriental Med 2005;26(3):74-79

원 저

顚倒散 도포가 여드름에 미치는 임상적 연구

홍석훈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피부과교실

The Clinical Study on the Effect of *Jeondo-san(Diandao-san)* on Acnes.

Seok Hoon Hong

Department of Orient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effect of Jeondo-san (JDS) on acne.

Methods : From December 1, 2003 to January 31, 2004, 11 patients with acne were observed, limited to patients who were treated with JDS for more than three weeks. JDS mixed with cold water was used on outbreaks of acne, 15 minutes, 1 time per night, 6 times per week.

Results & Conclusions : 3 males and 8 females were treated over three weeks. The average age was 21.73 years old. Before treatment, acne patients had sparse papules on the forehead, both cheeks, and chin. After treatment over three weeks, nine acne patients changed for the better at a rate of 81.8% (mild improved 54.6%, improved 18.2%, much improved 9%)

Key Words: *Jeondo-san (Diandao-san)*, acne.

緖 論

顚倒散은 淸代 吳[1]의《醫宗金鑑》에 수록되어 있는 처방으로 大黃, 硫黃의 2味로 구성되어 酒齄鼻 및 肺風粉刺를 치료하는 외용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肺風粉刺란 현대의학의 여드름(acne)을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피부의 모낭이나 피지선이 막혀 발생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이다[2-4].

보통 10세 전후에 발생하여 청소년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성인이 되면 점차 감소하기도 하지만 성호르몬의 불균형, 스트레스, 內臟疾患, 화장품 등으로 인해 30代에서 40代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5].

韓醫學에서 여드름과 관련된 최초의 내용으로는《素問 · 生氣通天論》에서 "汗出見濕 乃生痤痱 …… 勞汗當風 寒薄爲齄 鬱乃痤"라 하여 痤痱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래, 巢가 처음으로 面疱라는 병명 및 원인, 증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이후 齄瘡, 面生瘡, 粉刺, 面皶皰, 肺風粉刺, 酒齄鼻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되면서 顔面部에 발생하는 기미, 주근깨, 땀띠, 뾰두라지, 딸기코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어왔다[6].

여드름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 실험논문으로는 林

· 접수 : 2005년 4월 25일 · 논문심사 : 2005년 6월 24일
· 채택 : 2005년 7월 29일

· 교신저자 : 홍석훈.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한방 1과, 전남 순천시 조례동 544번지.
(Tel : 061-720-7520, E-mail : gate111@wonkwang.ac.kr)

* 본 연구는 2004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등[7]은 加減枇杷淸肺飮이 면포에 미치는 영향을, 노 등[8]은 苦蔘 추출물이 모발성장 촉진 및 면포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홍 등[9]은 淸上防風湯加味가 면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발표하였으며, 임상논문으로는 최 등[9]은 여드름에 대한 임상적 연구를, 김 등[10]은 面疱散의 면포질환 치험 8례에 대한 보고를, 서 등[11]은 산성수 도포가 면포에 미치는 임상적 연구 등을 발표하여 여드름에 대한 內·外治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방 외용약에 대한 임상보고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여드름은 주로 노출부위인 안면에 발생하여 반흔을 남길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할 만한 질환은 되지 못하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12], 현대에는 피부미용의 의미에서 피부 맛사지, 팩 등의 피부관리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韓醫學에서 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散劑 중 이전부터 여드름에 많이 사용된 顚倒散만을 단독으로 여드름에 도포하여 임상적으로 有意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對象 및 方法

1. 對象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2개월간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에서 실시한 顚倒散 체험단에 참가한 여드름 병변 환자 중 3주이상 참여한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顚倒散의 處方內容 및 投與方式

1) 顚倒散의 構成

大黃, 硫黃 各 5g. 硏爲細末, 和勻再硏, 凉水調敷.

2) 本草分析[13]

(1) 大黃(Rheum undulatum Linne) : 肝, 脾, 胃, 大腸, 心包經으로 들어가 瀉熱通腸, 凉血解毒, 逐瘀經痛하는 효능으로 癰腫瘡腫, 腸癰腹痛, 跌打損傷, 水火燙傷 등을 치료한다.

(2) 硫黃(Refined article of Sulfur) : 腎, 大腸經으로 들어가 外用하면 解毒殺蟲療瘡하는 효능으로 疥癬, 禿瘡, 陰疽惡瘡을 치료한다.

Table 1. The Improvement Score of Acnes

Improvement State	Score
별무호전 : 발진의 크기나 분포부위가 예전과 거의 같다.	0
약간호전 : 발진의 크기나 분포부위가 예전보다 약간 줄었다.	1
호전 : 발진의 크기나 분포부위가 예전보다 반으로 줄었다.	2
매우호전 : 발진의 크기나 분포부위가 예전보다 현저히 많이 줄었다.	3

3) 治療方法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에서 만든 顚倒散을 10g씩 分別 포장하여 매일 저녁 세면한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냉수 5cc에 개서 일정한 점도로 만들어 팩을 하는 방법으로 병변부위에 바르고 15분정도 지나면서 팩이 마르게 되면 맑은 물로 씻어내는 방법으로 매일 1회, 매주 6회 실시하고 마지막 하루는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평가방법

육안으로 관찰한 병변부위(額部, 頰部(左右), 鼻

Table 2. The Distribution of Age

Age(years)	Number(명)
12	1
18	1
20	1
21	2
22	2
23	1
25	1
26	1
29	1
Total	11

Table 3. The Distribution of Sex

Sex	Number(명)
Male	3
Female	8
Total	11

部, 口唇部, 下顎部, 胸部, 背部, 기타부위), 발진형태(丘疹型, 膿疱型, 凝塊型), 분포형태(Ⅰ-드문 형태, Ⅱ-중간 형태, Ⅲ-밀집 형태)와 기타 자각증상을 초진시 기록하고, 매주 방문시마다 호전양상을 별무

Table 4. The Distribution of Occurred Period

Occurred Period	Number(명)
Primary School	2
High School	5
University	4
Total	11

호전(no changed), 약간 호전(mild improved), 호전(improved), 매우 호전(much improved)으로 점수화하여 판정하였다(Table 1).

結 果

1. 여드름 환자군의 연령별 분포

Table 5. The Occurrent Region of Acnes

Occurrent Region	Number(명)
Forehead	7
Cheek(Lt.)	6
Cheek(Rt.)	7
Nose	1
Mouth	2
Chin	6
Shoulder & Back	1

여드름 환자군의 연령별 분포는 10대가 2명, 20대가 9명이었고, 전체 평균연령은 21.73세였다(Table 2).

2. 여드름 환자군의 성별 분포

여드름 환자군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3명, 여자가 8명이었다(Table 3).

3. 여드름 환자군의 최초발병시기별 분포

여드름 환자군의 최초발병시기별 분포는 초등학교 시절이 2명, 고등학교 시절이 5명, 대학교 시절이 4명이었다(Table 4).

4. 치료전 면포 발생 부위, 발진 형태, 분포 형태 및 기타 증상에 대한 분류

(1) 여드름 발생 부위

여드름 발생 부위의 분포는 額部가 7명, 頰部(左)가 6명, 頰部(右)가 7명, 鼻部가 1명, 口唇部가 2명, 下顎部가 6명, 肩部 및 背部가 1명이었다(Table 5).

(2) 여드름 발진 형태

여드름 발진 형태의 분포는 구진형(Papules Type)이 11명, 농포형(Pustules Type)이 6명, 응괴형(Conglobata Type)이 0명 이었다(Table 6).

(3) 여드름 분포 형태

여드름 분포 형태에 따른 분류로는 드문 형태(Rare Type)가 6명, 중간 형태(Middle Type)가 4명, 밀집 형태(Massed Type)가 1명이었다(Table 7).

5. 치료후 호전율

(1) 전체 호전율

3주 이상의 치료후 4단계의 호전도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별무호전 2명(18.2%), 약간 호전 6명(54.6%), 호전 2명(18.2%), 매우 호전 1명(9%)으로 전체 호전율은 81.8%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6. The Eruption Type of Acnes

Eruption Type	Number(명)
Papules Type	11
Pustules Type	6
Conglobata Type	0

Table 7. The Aspect of Acnes

Aspect	Number(명)
Rare Type	6
Middle Type	4
Massed Type	1
Total	11

(2) 분포 형태에 따른 호전율

호전율을 분포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드문 형태(Rare Type)에서는 약간 호전이 3명, 별무호전이 2명, 매우 호전이 1명이었고, 중간 형태(Middle Type)에서는 호전과 약간 호전이 각각 2명이었으며, 밀집 형태(Massed Type)에서는 약간 호전이 1명이었다(Table 9).

考 察

여드름(acne)은 pilosebaceous follicle(모낭-피진선 단위)을 침범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14]으로, 주로 10대의 사춘기와 젊은 년령층에 호발하며 病의 진행에 따라 丘疹, 膿疱, 結節 및 囊腫이 출현하고 염증이 심해지면 瘢痕을 남길 수도 있으며 피지선의 분비가 많은 안면부에 주로 생기고 이외에도 목, 가슴, 어깨, 등에도 호발한다[3-5].

초발진은 면포이며 이것은 모낭이 막혀 피지와 각질 등이 저류된 것이다. 입구가 열려 있는 개방면포와 닫혀 있는 폐쇄 면포의 2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흑색을 띠고 후자는 백색을 띤다. 면포가 오래되면 주위에 염증이 생겨 구진 · 농포 · 결절 · 낭종 등이 형성된다[15]. 주로 나타나는 發疹의 형태에 따라 심상성 여드름, 응괴성 여드름, 전격성 여드름, 월경전 여드름, 사춘기전 여드름, 직업성 여드름, 켈로이드성 여드름, 그람 음성균에 의한 여드름, 擦傷性 여드름으로 분류한다[3-4].

보통 10세 전후에 발생하며 여자에게서 남자아이들 보다 먼저 발생하고 더 오래 지속되어지며 평생 여드름이 나지 않다가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성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입가, 턱, 목 주위에 여드름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18세 이전에는 남성에서 증상이 더 심하고 빈도도 높으며, 重證 상태의 경우 10배정도 남자들에게서 잘 발생하고 지루성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특히 많이 발생한다[5].

여드름의 原因은 확실치 않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고 추정되어지는데 일반적인 원인으로 남성호르몬에 의한 피지 분비항진, 모낭개구부의 각화와 그것에 의한 피지의 배출지연 내지 모공내 저류, 세균성 리파아제에 의한 피지성분 중의 중성지방이 가수분해로 생긴 유리지방산의 모낭벽 자극, 세균에서 분비되는 화학주성 물질에 의한 모낭주위 염증 세포 침착, 유전적 소인 등이 있다. 최근에는 화장품성분, 부신피질 호르몬제, 직업으로 인한 기름왁스의 사용, 과도한 세제나 비누의 사용, 강한 자외선 등 환경 요인과 호르몬 이상으로 androgen의 분비항진 또는 모낭내에 상주하는 세균(Propionibactrium acnes; P. acnes)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3-4,16].

여드름에 대한 치료는 hormone의 피지분비증가, 병원성 인자인 이상각화, P. acnes의 증식 및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며 병발 정도에 따라 국소도포제 사용에서 항생제의 전신투여를 결정한다. 局所療法으로는 피부청결 · 약용비누 · Benzoyl peroxide ·

Table 8. The Improvement Grade & Rate of Acnes

Improved State	Number	Rate
No Change	2	18.2
Mild Improved	6	54.6
Improved	2	18.2
Much Improved	1	9

Table 9. The Improved State as per Acne Type

Aspect / Improved State	Rare	Middle	Massed
No Change	2	.	.
Mild Improved	3	2	1
Improved	0	2	.
Much Improved	1	.	.

Retinoic acid · 국소도포용 항생제(Clindamycin) · Comedo extractor를 이용한 壓出 療法 · 부신피질 홀몬제의 병변내 주사가 있으며, 전신요법으로는 항생제 · 여성 홀몬 · 부신피질 홀몬제 등을 투여하는 方法이 있고, 이외에 식이요법이 있으나 음식에 의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除外食은 필요없으나 균형있는 식사를 하고 과다한 지방과 비타민 내복은 피하도록 하며, 마음을 편안하게하고 변비, 위장장애, 생리불순 등과 같은 내부적인 다른 증세가 없는지 함께 검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하나, 아직 여드름 치료에 완전히 효과적인 단일 치료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3].

또한 여드름은 주로 노출부위인 안면에 발생하여 瘢痕을 남길 수 있어 生命을 위협할 만한 질환은 되지 못하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12], 현대에는 의료용 피부치료 및 피부미용 차원에서 피부 맛사지, 팩 등의 다양한 피부관리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한의학에서 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散劑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이전부터 여드름에 많이 사용된 顚倒散을 다른 어떤 내복 및 외용 등의 치료와 겸하지 않고 단독으로 여드름에 도포하여 임상적으로 有意한 결과를 얻었다.

本 方劑를 구성하는 개별 약물의 효능을 살펴보면[13] 肝, 脾, 胃, 大腸, 心包經으로 들어가 瀉熱通腸, 凉血解毒, 逐瘀經痛하는 효능으로 癰腫瘡腫, 腸癰腹痛, 跌打損傷, 水火燙傷 등을 치료하는 大黃과 腎, 大腸經으로 들어가 外用하면 解毒殺蟲療瘡하는 효능으로 疥癬, 禿瘡, 陰疽惡瘡을 치료하는 硫黃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淸熱解毒, 凉血祛瘀, 療瘡의 효능을 나타내고 있다.

本 硏究를 위해 일체의 내복 또는 피부관리 등을 배제하고 顚倒散만을 팩으로 하여 3주간 치료한 결과 전체 호전율은 81.8%를 나타내었는데 이중 가장 뚜렷한 개선을 보인 증상으로는 發赤, 上熱感, 丘疹, 膿疱의 순이었다. 다만 응괴형의 경우 대상이 없어 임상적 자료를 얻지 못하여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고, 2명의 환자에서 顚倒散으로 팩을 하고 나면 얼굴이 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은 환자가 있었는데 이는 顚倒散이 피지제거 효과가 있어 피부상태가 지성이 아닌 복합성의 경우 과도한 피지 제거로 일시적으로 당기는 증상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여 좀 더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체 호전율의 대부분인 54.6%가 약간 호전으로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는 환자의 내과적 질환이나 stress 상태 등에 따라 그에 알맞은 내복약을 함께 투여할 경우 좀 더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結 論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2개월간 전도산 체험단에 참가한 여드름 병변 환자 중 3주이상 참여한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도산을 도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8명의 여자와 3명의 남자를 관찰하여 평균 연령은 21.73세였으며, 여드름 환자군의 치료전 양상은 額部, 頰部(右), 頰部(左), 下顎部에 구진형의 여드름이 드물거나 중간인 형태였고, 3주 이상 치료후 호전된 경우는 9명으로 81.8%의 호전율(약간 호전 54.6%, 호전 18.2%, 매우 호전 9%)을 보였다.

참고문헌

1. 吳謙. 醫宗金鑑. 台北 : 大中國圖書公司. 1984:125.
2. 柳志允. 外科 皮膚科의 辨證論治, 부천:書苑堂. 1987:232-233.
3. 大韓皮膚科學會刊行委員會. 皮膚科學. 서울:麗文閣. 1990:347-350.
4. 西山茂夫. 圖解 皮膚科學. 서울:제일의학사. 1991:297-298.
5. 안성구, 이승헌, 박윤기. 흔히보는 피부질환. 서울 : 고려의학. 1993:59-62.
6. 홍석훈, 노석선. 청상방풍탕가미가 면포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2;15(1):315-335.

7. 林希璇, 蔡炳允. 加減枇杷淸肺飮이 面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2000;13(1):1-21.
8. 노현찬, 노석선. 고삼 추출물이 모발성장 촉진 및 面疱 억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2;15(1):96-126.
9. 최인화. 여드름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0;13(2):140-151.
10. 김종성, 김경준. 면포산의 면포질환 치험 8례. 대한외관과학회지. 2001;14(1):66-75.
11. 서형식, 홍석훈. 산성수 도포가 면포에 미치는 임상적 연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16(1):154-158.
12. 김현주, 임연순, 최혜영, 명기범. 여드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1998;36(5):850-854.
13. 전국한의과대학본초학교실. 本草學. 서울:永林社. 1991:242-243, 639~640.
14. 강원형. 피부질환 아틀라스. 서울:한미의학. 2003:173, 175.
15. 이영기. 원색최신의료대백과사전. 서울:신태양사. 1994:53.
16. 李惟信. 臨床皮膚科學. 서울:麗文閣. 1987:217-220.